

2022
이감
인사
이트



2023학년도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이감의
6모 분석자료집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분석

오답률 TOP 10 - 언어와 매체 응시 기준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4	독서	2	81%	①	19%	15%	18%	35%	13%
2위	7	독서	2	64%	①	36%	2%	4%	56%	3%
3위	15	독서	2	56%	⑤	9%	11%	10%	25%	44%
4위	31	문학	3	55%	⑤	1%	34%	7%	13%	45%
5위	16	독서	3	53%	④	4%	7%	19%	47%	22%
6위	13	독서	3	52%	③	4%	10%	48%	27%	11%
7위	11	독서	2	47%	②	3%	54%	4%	28%	11%
8위	8	독서	3	44%	②	2%	56%	11%	13%	18%
9위	9	독서	2	43%	③	20%	5%	57%	18%	0%
10위	21	문학	3	40%	⑤	2%	20%	9%	9%	50%

(%는 반올림한 값)

- 01** 오답률 통계는 ‘언어와 매체’ 응시생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오답률 TOP 1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 02**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8문항, 문학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 과목 중에서는 딱히 눈에 띄게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오답률 TOP 10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부 독서 문항들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것이다.

- 03**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는 7, 8, 9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8번 문항의 경우에는 통상 그 지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보기〉 문항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지만, 9번 문항의 경우에는 어휘 문제라는 점에서 새롭다.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 17번의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어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어휘 문제는 수험생들의 시간 관리에 상당한 방해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04** 과학 지문에서는 11, 13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이 제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번 문항은 왜 ‘칼슘의 역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의식하면서 읽었다면 비교적 판단하기가 용이했을 텐데, 아무래도 지문의 밀도가 높아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3번 문항은 예상대로 제법 어려운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다.
- 05** 사회 지문에서는 14, 15, 16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17번 문항은 어휘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그마저도 오답률은 3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실상 내용을 묻는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로 지문 자체가 상당히 불친절하다. 관련 논의를 접한 바가 없다면 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가장 처음 마주하는 14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헷갈렸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어지는 15, 16번 문항에 대한 판단도 어려웠을 것이다.
- 06** 문학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고전소설의 21번, 현대소설의 31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전소설은 발췌 부분의 길이도 상당하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와 관계의 복잡성도 상당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전체적인 서사를 장악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 영향으로 21번 문항의 선지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실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1번 문항은 ‘초점화’라는 오래된 문학 개념을 토대로 특정 대목을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지들을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문항 해설]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II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 작년 6월 모의평가 이후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서론’을 포함한 4개의 독서 지문이 1~17번에 배치되었고, 문학 지문은 18~34번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수능 까지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작년 대수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는 다소 늘어났지만, 그 이전의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짧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평가원은 분명 지난 대수능에서의 논란을 의식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출제를 지향했다. 선지들이 배치되는 방식에서도 수험생들로 하여금 판단 근거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선지가 무엇을 판단하도록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선지들이 여럿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분명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험에 익숙해져야 한다. 선지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훈련은 지금까지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한 바이다.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말고, 선지의 근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문

- 독서론 지문은 소재의 측면에서는 ‘독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나머지 독서 지문들과 다르지 않다. 출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첫 번째 지문은 ‘독서’에 대한 비교적 쉬운 독서 지문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인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의 경우 (가)에서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한(漢)의 치국 계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문과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교 사상과 결합한 왕도 정치를 제안한 것이다. 반면 (나)에서는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의 역사서 편찬’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명이 옮겨 갔음을 강조하고자 조선의 사상인 유교적 시각을 취해 과거의 사상인 불교 사상의 폐단을 부각하고 새로운 유교 사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가), (나)의 관계를 명료하게 짚어 내지 않았다면 7번의 ㄷ을 비롯하여 각 선지들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 과학 지문은 ‘혈액의 응고’ 및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보량이 상당하지만 가장 전통적인 형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 학습을 충실히 하였다면, 그리고 같은 소재를 다룬 이감 모의고사 시즌4 1차 [→ 이감ON 4차]를 충분히 학습했다면 비교적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사회 지문은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표본이 임의로 선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려움], 그것과 ‘이중차분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평행추세 가정’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 인지를 문단2와 문단4를 통해 읽어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 문항

- 전반적으로 선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작년 대수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경향은 올해 대수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어진 지문을 잘 읽는 것만큼이나 주어진 선지를 잘 읽는 것 역시 중요하다.
- 틀린 선지 하나에 마음 휘둘리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충분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좌절의 시간보다는 당장의 복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법이다. 많이 틀렸다면 그만큼 본인의 약점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계기임을 잊지 말고, 이어지는 개별 지문에 대한 지문 분석 및 문항 해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자.

02. 지문 분석

❖ [1~3] 독서론

- 읽기 요소에 속하는 ‘어휘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는 짧은 글이 제시되었다. 읽기 기능, 읽기 흥미, 동기, 어휘력 등이 모두 ‘읽기 요소’에 속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독서론과 달리, 이렇게 여느 독서 지문처럼 독해를 해야 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머지 독서 지문들과 다르지 않은 출제라고 할 수 있다.
- 연계 양상 : 뚜렷한 연계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 [4~9] 인문-인문(주제통합형) : 한의 치국 계책과 조선의 역사서 편찬

- (가)에서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한의 치국 계책’을 주제로 삼아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설득하려는[→ 옛 국가인 진(秦)은 ‘힘의 지배’를 숭상하였다.] ‘육가’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의 역사서 편찬’을 주제로 삼아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기 위해 ‘집현전 학자들’이 고려의 불교 사상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사상가의 관점을 서술하기보다는 (가), (나) 모두에서 어떤 의도하에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연계 양상 : 뚜렷한 연계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고난도 문항 해설 : 7번 (오답률 64%)

* 정답 설명 : ①

[선지]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 1) ‘육가’는 옛 국가인 진(秦)의 단명 원인으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을 지적하였다.
- 2) 또한 새 국가인 한의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신어』에서 설득하고자 하였다. 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 진의 경우와 달리, 유교 이념에 기반하는 왕도 정치를 통해 권력의 유지와 확장이 가능[→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3) 따라서 ㄱ은 육가의 입장에 부합한다.
- 4) ‘집현전 학자들’은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국가 말기의 혼란 등을 부각하여 다루었다. 또한 「국조(國朝)」

부분에서는 옛 국가인 고려 정치에 대하여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내었다.

- 5) 이러한 편찬 방식은 옛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다[나]의 문단4].
- 6) 따라서 ㄱ은 집현전 학자들의 입장에 부합한다.

* 오답 설명

[선지]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 1) 육가는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였다[가]의 문단4].
- 2) 육가는 동일한 맥락에서 진의 멸망 원인으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을 제시하였다. 즉 진이 군주의 잘못된 정치 운영에 의해 천명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 3) 따라서 ㄴ은 육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4) 집현전 학자들은 『치평요람』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나]의 문단3].
- 5) 즉 옛 국가는 잘못된 정치 운영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그 천명이 새 국가인 조선으로 옮겨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6) 따라서 ㄴ은 집현전 학자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지]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1) 진은 역사 지식과 학문이 오히려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꾀했다[가]의 문단1]. 이는 ‘사상적 공백’에 대응하는 설명이다. 즉 진의 멸망 원인이 사상을 통제하고 그 대신에 법과 제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 2) 그래서 육가는 새 국가의 군주인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신어』에서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제안한 것이다.
- 3) 따라서 ㄷ은 육가의 입장에 부합한다.
- 4) 집현전 학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나]의 문단4]. 이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 5) 즉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미 조선에는 유교 사상이 자리 잡힌 상황이었고, 그러한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 국가인 고려의 사상적 폐단을 강조한 셈이기 때문이다.
- 6) 집현전 학자들은 불교 사상을 유교 사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본 것이지, 유교 사상이 불교 사상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 7) 따라서 ㄴ은 집현전 학자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10~13] 과학 : 혈액의 응고와 순환을 위한 비타민 K의 역할

- 혈액의 응고와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 필요한 ‘비타민 K’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혈액 응고 인자,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 기여하는 MGP의 활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러모로 전형적인 형태의 과학 지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221쪽의 핵심 개념소인 ‘혈관의 손상’이 그대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다만 이를 비타민 K의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해당 지문은 관련 소재를 동일하게 출제한 이감 모의고사를 충분히 활용한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다가왔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3번 (오답률 52%)

* <보기> 설명

- 1) 혈전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동맥 경화에 의해 침착되는 경우에는 혈액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거나, 동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가) ‘와파린’은 오직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이는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지만, 동시에 MGP의 활성화도 억제하여 동맥 경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 3)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는 오직 피브리노를 분해한다.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전을 만드는 만큼 피브리노가 분해된다면 혈전의 생성도 억제되고, 이미 형성된 혈전이라도 분해될 것이다.

- 4) (다) ‘헤파린’은 오직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즉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의하여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어도 그로 인한 혈전의 생성이 억제된다는 뜻이다.

*** 정답 설명 : ③**

- 1)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 2) (다)는 트롬빈의 작용만을 억제한다. 이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어 최종적으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지, 애초부터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가)는 MGP의 활성화도 억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투여할 경우에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여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② (나)는 피브리노겐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다.
- ④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어 혈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피브리노겐에 트롬빈이 작용해야 한다. 즉 트롬빈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만큼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를 저해시킨다. 즉 트롬빈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가)에 의해 피브리노겐의 전환이 억제된다. 또한 (다)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피브리노겐의 전환을 억제한다.
- ⑤ (나)는 피브리노겐을 분해하는 만큼 피브린이 모여 형성되는 섬유소 그물의 형성도 억제할 것이다. 또한 (다)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만큼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한다. 그렇다면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도 억제될 것이다.

❖ [14~17] 사회 : 이중차분법의 원리

- ‘실험적 방법’과 구분하여 ‘이중차분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정보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중차분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가정인 ‘평행추세 가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독서 지문들 중에서는 가장 노골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졌지만, 연계 학습이 무색할 정도로 오답률 1위인 14번 문항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18쪽의 핵심 개념소인 ‘이중차분법’이 그대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4번 (오답률 81%)

*** 정답 설명 : ①**

- 1)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 2)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면 사건 후의 시행집단의 평균 임금을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다는 뜻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4) 이때 실험적 방법을 통해 평가한 ‘사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사건 전후 변화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해당 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오해다.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만을 통해서는 ‘해당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없다. ‘해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순수하게 임금에 미친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오답 설명**

- ② ‘실험적 방법’은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지,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크기’가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크기’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 ④ 스노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사례이므로, 그렇다면 시행집단은 어떤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 수원이 바뀐 주민들]로 구성되고, 비교집단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로 구성된다. 이중차분법은 여

기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비교하는 것이다. 즉 각 집단에서 '사건 후의 상태 - 사건 전의 상태'를 구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집단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전의 상태'가 두 집단에서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목] '이중차분법'은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에서는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중차분법에서도 사건 전에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 이중차분법은 실험적 방법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 ⑤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수원이 바뀐 주민들[→ 시행집단]과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 비교집단] 사이에 공기의 차이가 있었다면 평행추세 가정은 충족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공기를 통해 콜레라의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공통과목 : 문학

01. 출제 경향

❖ 총평

- 총 7개 작품 중에 고전소설 「소현성록」, 고전시가 「자도사」, 현대시 「향아」 3개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다. 연계 비율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은 EBS 교재와 사뭇 다른 부분이 출제되어서 연계 체감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연계 체감이 높았을 것이다. EBS 연계 50% 출제 시대에 문학은 EBS 연계만 믿고 낯선 작품 독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연계 체감률이 낮은 고전소설이 문학 첫 지문인 데다 등장인물도 10여 명이어서 독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문학 시험 운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 지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수필은 주로 고전수필이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최근 작가인 공선옥의 현대수필이 이례적으로 출제되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수험생에 따라서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공감이 되지 않아 문제 풀이에서 곤혹을 겪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현대소설은 작가 연계 작품으로 다소 익숙한 편이기는 하나, 출제된 지점이 자주 못 보던 부분이어서 소설의 장면 파악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
- 31번과 34번 문항이 난도가 매우 높았고, 정답 선지의 틀린 지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선지의 미시적인 특정 부분을 그럴듯하지만 틀리게 비틀어 놓은 선지들이었다. 선지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되, 좁은 부분을 정밀하게 보는 힘도 길러야 하겠다.

❖ 출제 작품

분야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문항	작자 미상, 「소현성록」	수능특강 p.138
고전시가 + 수필	6문항	황희, 「사시가」	비연계
		조우인, 「자도사」	수능특강 p.59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비연계
현대소설	4문항	채만식, 「미스터 방」	비연계(작가 연계)
현대시	3문항	신동엽, 「향아」	수능특강 p.90
		기형도, 「전문가」	비연계

02. 작품 분석

❖ [18~21]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소현성록』

- EBS 수능특강에서는 소현성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풀어낸 반면, 평가원 시험에서는 여씨의 음모와 발각, 그리고 처벌의 과정이 출제되었다. 수능특강에 수록된 지문만을 공부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연계율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과 공간의 설정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지문 독해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 문제 자체는 평이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 21번 (오답률 40%)

* 정답 설명 : ㉔

- 1) 상서는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다는 여씨의 변명에, 이를 ‘금수의 행동’이라 하며 ‘책망하’고 있다. 상서는 여씨의 잘못에도 말로 교화하려 한 것이다.
- 2) 한편 여씨는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화씨를 모함하려 하다가 발각되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받은 양 부인은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고, ‘내치’는 등 엄한 벌을 준다.
- 3) 여씨에 대해 상서와 양 부인이 서로 다른 처벌 방법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처벌 방법을 두고 상서와 양 부인이 대립하지는 않았다. 또한 두 사건이 상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이 처벌 방법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② 여씨는 ‘강충’이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려 음모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석씨가 마침 병이 나’게 되어 ‘계성’이 ‘취성전’을 청소하게 된다. 이때 계성은 석씨의 ‘침상 아래’에서 ‘봉한 것’을 ‘얻어 내’ 양 부인에게 전달하는데, 양 부인은 그 안에서 석씨의 필적으로 된 흉악한 글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여씨가 ‘강충’의 ‘이간’을 떠올린 직후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음모자인 여씨가 아랫사람인 ‘계성’을 조력자 삼아 꾸민 ‘이간’일 테고 독자는 여씨의 음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읽으며 서사적 긴장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그 글’은 ②번 선지 해설에서 등장한 ‘봉한 것’의 내용물로, 여씨가 석씨를 이간질하려는 음모가 담긴 물건이다. 이를 본 양 부인은 ‘그 글’을 불사르고, 누설치 못하

계끔 시녀들에게 당부한다. 이는 양 부인이 여씨의 음모를 저지한 것으로, 음모자 [→ 여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다는 〈보기〉의 설명과 합치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22~27] 고전시가 + 수필 :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조우인의 「자도사」는 연계 출제,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은 비연계 출제이다. 황희의 「사시가」의 경우, EBS 수능특강의 「강호사시가」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시가 두 작품에 현대수필을 붙이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으며, 고전시가 두 작품의 경우 문항에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거나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은 주석을 따로 붙이지 않았다. 수필은 최근의 수필을 출제했지만, 문항 간의 중복성이나 선지 순서에서 논리의 불명확함이 보이는 등 완전하지 못한 출제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된다.

문항 해설 : 24번 (오답률 15%)

* 정답 설명 : ㉔

- 1) ‘건곤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 화자는 ‘임의 터진 옷’을 기워 주고자 한다. 그러나 화자는 ‘음력 선달’이 거의 다 지나, ‘새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임의 옷을 기워 주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
- 2) 즉 ㉔에서 (나)의 화자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새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임의 옷을 기워 주는 것이 의미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① ㉔은 여성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을 만나기 힘들음을 ‘갈 길이 아득하’다고 표현한 대목이다. 즉 ㉔은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보기〉의 설명 중 ‘자도’가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이라는 대목과 연결되어 여성 화자의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보여 준다.
- ⑤ ㉔은 임을 만날 수 없어 슬퍼하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원곡(怨曲)’으로 풀

어내는 대목이다. ‘원곡(怨曲)’은 원망을 담은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볼 수 없는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8~31] 현대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비연계 작품이지만, 수능특강에 동일 작가의 작품인 「논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비연계이지만 수험생들에게 낯선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앞부분의 줄거리] 이후에 연결되는 초반부의 상황 파악은 다소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
- 31번 문항은 문학 영역 전체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초점화’, ‘나열’, ‘정서 확장’ 등 지문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초점화’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작품에 적용해서 선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이를 피하여 선지 후반부의 내용을 정오 판단의 지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해당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한참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1번 (오답률 55%)

* <보기> 설명

- 1)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서술 방법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 :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 조절
⇒ ‘시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점화’는 사건을 ‘누가 보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누구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느냐에 따라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
 - 세부 항목의 나열 : 장면의 분위기 고조
 -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 : 현장감
- 2) 이때 독자는 백 주사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백 주사에게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백 주사와 그의 가족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정답 설명 : ⑤**

[선지]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 1) [E]의 내용은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 2) 그러나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등은 서술자의 시선에서 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만약 백 주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했다면, ‘아들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아들은 처가로, 자신은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와 같이 서술되어야 한다.

[주목]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서술을 하게 되면 독자와 백 주사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독자를 백 주사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세우려면 백 주사와는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백 주사의 몰락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서술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②**

[선지]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1) [B]에는 군중들이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여 꺼낸 물건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다. 이 물건들은 백선봉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있으면서 부정하게 모은 것들이다.
- 2)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한다는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B]에서 물건들의 세부 항목을 나열한 것은 습격 당시의 현장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 3) 다만 습격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들뜬 분위기’인지, ‘군중’이 놀라고 분노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백선봉이 ‘순사’가 된 이후로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며 호의호식을 하는 동안 ‘남들[→ 군중]’은 굶주리고 있었다. ‘군중’이 ‘8·15 그날 밤’ 백선봉의 집을 습격한 사건은 일제 강점기를 보내며 억눌린 ‘군중’의 분노가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니 백선봉을 응징하는 현장은 ‘들뜬 분위기’였을 것이고, 그의 집에 쌓인 물건들을 본 ‘균중’은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 [32~34] 현대시 :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 신동엽의 「향아」는 연계 작품이며, 기형도의 「전문가」는 비연계 작품이다. 비연계인 (나)가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보기〉에서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34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내용을 작품에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선지와 〈보기〉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이 적절한 감상인지 여부를 해당 작품의 맥락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③번 선지의 경우,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을 작품 안에서 읽어 내지 못하고 〈보기〉에 ‘자족적인 농경 문화’라는 구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문학에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작품 감상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항 해설 : 34번 (오답률 39%)

* 〈보기〉 설명

- 1) (가)와 (나)의 공통점 :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
- 2) (가)의 비판 대상 :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
- 3) (나)의 비판 대상 :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 정답 설명 : ①

- 1) (가)의 화자가 ‘가자’고 권유하는 ‘미개지’는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
- 2)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미개지’는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3) (가)에서 ‘미개지’로 가자는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로 변주되는데, 이는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를 종합하면 화자의 권유는 물질문명에서 벗어나서 농경 문화의 전통으로 돌아가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주목] <보기>의 ‘회복’과 ①번 선지의 ‘확장’을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자가 비판하는 공동체의 현재 모습과 화자의 지향점을 이해하면, 화자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려는 의식을 지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③**

- 1) (가)의 화자는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화자가 지향하는 농경 문화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맨발을 벗고’ 직접 ‘콩바심’을 하는 모습〔→ 자족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농경 문화와 상반되는 물질문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주목]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화자가 지향하는 농경 문화의 전통이 물질문명과는 달리 자족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4) 즉, 자족적인 농경 문화에서와는 달리 물질문명 아래에서 ‘목숨을 가꾸기’ 위해서는 ‘기생충’처럼 기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5) 한편, (나)에서 ‘유리’가 아닌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자고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고 통제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 작년 대수능에 비해 ‘화법과 작문’은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작년 대수능에서는 함정과 같은 요소들을 박아 놓은 탓에 몇몇 문항의 오답률이 꽤나 높았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함정 문항이 없었던 탓에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작년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분량이 제법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 내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 출제 형식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화법’에서는 ‘발표’가 출제되었는데, ‘발표’는 대수능과 모의평가의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식이다. ‘화법-작문 통합’에서는 ‘대화-비평문’이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이 대화나 회의, 토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구성 역시 대수능과 모의평가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던 형식이다. 게다가 ‘대화-비평문’의 구성은 2021학년도 대수능에서 한 번 출제된 바 있고, 당시와 문항 구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작문’에서는 신문 독자 기고란에 ‘주장하는 글’을 쓰는 내용이고, 문항 구성 역시 익숙한 형식이다.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서 출제 형식으로 인한 낯설음은 없었을 것이다.
- EBS 교재와의 연계는 ‘화법’에서 ‘틔발’이라는 소재가 연계되었다. 하지만 EBS의 내용은 틔발을 마을 주민들에게 임차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이라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작문’도 또래 상대자 모집을 위한 면접의 내용에 ‘청소년 심리 상담’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재를 아주 느슨한 연계로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매년 말해 왔듯이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35~37] 화법(발표) : 틔발 가꾸기 사례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발표’가 또다시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은 ‘발표에서의 말하기 방식(35번), 자료 활용 계획(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 세트에서 익숙한 구성이었다.

- [35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것으로 ‘발표’ 세트의 전형적인 첫 번째 문항이다. 말하기 방식에 사용되는 선지들은 비슷한 내용의 몇몇 선지들이 돌아가면서 등장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말하기 방식 문제에서는 ‘준언어적 표현의 사용’

[→ ②번 선지]에 관한 선지가 처음으로 등장해 조금 신선했다. 참고로, 준언어적 표현은 ‘대화(회의, 토의, 면접)’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 [36번] 자료 활용 계획을 묻는 문항으로, ‘발표’ 세트의 두 번째 문항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기존의 문항에서는 지문의 자료와 <보기>의 자료가 일대일로 대응하게 구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발표’의 흐름에 따라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했다. 때문에 일반적인 자료 활용 계획 문항을 풀 때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 [37번] 청중의 듣기 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발표’ 세트의 세 번째 문항에서 꾸준히 다뤄 오던 것이다. 게다가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 내용들이 지나치게 평이한 수준이라 수험생들이 쉽게 풀었을 것이다.

❖ [38~42] 화법-작문 통합(대화-비평문) :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관한 비평

- 학생들의 ‘대화’ (가)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 (나)로 구성된 ‘화법-작문 통합’ 세트이다. 학생들의 ‘대화’[→ 대화, 토의, 회의 등으로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영역으로 파악해도 무방함]인 ‘화법’과 이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작문’으로 구성된 ‘통합’ 세트는 ‘화법’과 ‘작문’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지만 달라질 뿐 대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다.
- 지금까지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대화(회의, 토의)’였으며, 지난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수능 모두에서 ‘대화’가 출제되었다.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대화(회의, 토의)’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관한 선지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비평문’은 2021학년도 대수능에서 출제된 바 있는데, 이때에도 ‘대화-비평문’으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올해 ‘화법-작문 통합’ 세트에서는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등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 [38번] ‘대화’ 참여자들 가운데 진행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진행자의 역할을 묻는 문항은 아니고,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이 크다.
- [39번] ‘대화’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가)에 ‘대화’, ‘회의’, ‘토의’ 등이 등장할 때 통상 출제되는 형식이다.
- [40번] (가)와 (나)를 연계한 문항으로,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나)의 글에 적

절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복합 세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익숙한 문항 형식이고 선지의 내용들도 단순해서 쉬웠을 것이다.

- [41번]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작성하는 문항으로, 이 세트에서 통상 ‘끝부분 쓰기’ 문항이 출제되던 것과 달리 아주 오랜만에 ‘제목’을 작성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만, 정답인 ④번 선지가 (나)에 정확히 부합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선지들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었기에 수험생들이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42번] (나)의 ‘비평문’을 점검하는 문항으로, ‘비평문’이라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후 이에 따라 (나)를 점검하고 있다.

❖ [43~45] 작문(주장하는 글) : 청소년을 위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 확대 실시 주장

- ‘작문’ 세트에 자주 출제되는 ‘글에 나타난 표현 전략(43번), 자료 활용(44번), 고쳐쓰기(45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트에서는 ‘자료 활용’ 문항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고쳐쓰기’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고쳐쓰기’ 문항의 정답을 찾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3번]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표현 전략을 파악하는 문항이었다.
- [44번] ‘작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이었는데, <보기>의 분량에 비해 제시된 자료가 지극히 평이해 정답을 찾기 쉬웠을 것이다.
- [45번] 기존의 ‘고쳐쓰기’ 문항은 초고와 수정 후 글을 비교하고 달라진 부분만 찾아내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문항에서는 골조는 그대로이되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는 데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언어

❖ 총평

- 언어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중세 국어에서 출제되었다. 난도는 작년 대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 올해 6월 모의평가는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다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35번과 36번 문항의 경우, 기존에 다루었던 개념을 낯선 방식으로 서술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해설 : 39번 (오답률 30%)

* 정답 설명 : ③

피동문의 서술어를 만드는 문법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또한 문장이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밝혀지다’는 능동문의 서술어 ‘밝히다’의 어간 ‘밝히-’에 피동의 문법 요소 ‘-어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예이다. 참고로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그 자체로는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 오답 설명

- ① ‘입히다’는 동사의 어간 ‘입-’에 사동 접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 ② ‘건네받다’는 동사의 어간 ‘건네-’에 접사 ‘-받-’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건네-’는 접사 ‘-하-’가 결합할 수 없는 단어이므로 ㉠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④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처럼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⑤ ‘이루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이므로 ㉠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에서는 ‘-아지-/어지-’가 형용사나 자동사에 결합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02. 매체

❖ 총평

- 올해 6월 모의평가의 ‘매체’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난이도는 작년 대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텍스트 분량이 적어 문제 풀이에 시간이 덜 소요되었을 것이다. 다루는 주제나 내용 역시 특별할 것이 없었으며 고난도 문제도 눈에 띄지 않았다.
- 출제 형식은 ‘매체의 표현 기법,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 매체의 비판적 수용,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생산 계획)’을 하나로 묶은 4문항 형식과 ‘매체의 생산 계획, 매체의 특성’을 하나로 묶은 2문항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4문항 + 2문항 형식으로 출제된 것은 지난해 9월 모의평가부터 이어지고 있는 형식이다. 여러 매체들 중 텔레비전 방송(뉴스), 포스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선택하여 다루었다.
- 작년 대수능과 다르게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문항이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막의 역할에 관한 40번 문항이나 매체 기획에 관한 44번 문항처럼, <보기>가 없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판단 근거가 지문에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고, 지문의 맥락이나 문맥상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 EBS 교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문은 없었다. 수능특강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이 있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와 느슨한 수준의 연계라고 파악되는 정도이다.

❖ [40~43] 언어-매체 통합(텔레비전 뉴스-포스터) :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4문항 형식이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의 역할(40번),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41번),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적 수용(42번), 포스터의 정보 구성 및 표현 방식(43번)으로,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비판적 수용에 대해 묻는 문항과 보도 내용을 새로운 매체로 재생산하는 문항 등 그동안 출제되었던 형식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 [40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특성 및 역할을 묻는 문항이다. 매체의 특정 표현 방식, 그중에서도 자막만을 짚어 묻는 문항은 처음 출제되었다. 다만, 지문에 제시된 바를 토대로 자막의 특성 및 역할을 유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41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항상 출제되었던 형식이다.

- [42번]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역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온 내용이다.
- [43번] 같은 내용을 새로운 매체로 재생산할 때 그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온 문항이다.

❖ [44~45] 매체(실시간 인터넷 방송) : 궁중 채화 만들기

-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그 생산 계획과 특성을 파악하게끔 한 세트이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처음 다루었으나 형식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매체의 생산 계획(44번)과 매체의 특성(45번)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 [44번]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생산 계획에 대해 묻고 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운 생산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 [45번]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특성 중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보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푸는 문항이나, <보기>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감 연계 양상

독서

분야	주제	EBS 연계	이감 연계
인문 통합 [4~9]	한국의 치국 계책과 조선의 역사서 편찬	비연계	
과학 [10~13]	혈액의 응고와 순환을 위한 비타민 K의 역할	수능특강 p.221	2022 이감 시즌4 1차 2022 이감ON 4차 2022 시즌4 간쓸개 01 2022 간쓸개 에센셜 03
사회 [14~17]	이중차분법의 원리	수능특강 p.118	

문학

분야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소현성록」	수능특강 p.138	2022 이감 시즌4 2차
고전시가 + 수필 [22~27]	(가) 황희, 「사시가」 (나) 조우인, 「자도사」 (다)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비연계 수능특강 p.59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시즌4 간쓸개 02 2022 시즌4 간쓸개 04 2022 간쓸개 에센셜 03
현대소설 [28~31]	채만식, 「미스터 방」	비연계 (작가 연계)	
현대시 [32~34]	(가) 신동엽, 「향아」 (나) 기형도, 「전문가」	수능특강 p.90 비연계	2022 시즌1 간쓸개 02 2022 시즌3 간쓸개 03 2022 간쓸개 에센셜 01 2022 간쓸개 에센셜 02

화법과 작문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텃밭 가꾸기 사례 (발표)	수능특강 p.57 (텃밭 사업)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화법-작문 통합 [38~42]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관한 비평 (대화 - 비평문)		2022 이감 시즌2 1차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이감ON 3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작문 [43~45]	청소년을 위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 확대 실시 주장 (주장하는 글)	수능특강 p.83 (도래 상담)	2022 이감 시즌4 4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언어와 매체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음운론/형태론 [35~36]	음운, 형태소, 음운 규칙 (음운 변동)	수능특강 p.15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강대 1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중세 국어 [37]	객체 높임 (현대 국어와의 비교)	수능특강 p.224	2022 이감 시즌2 1차
형태론 [38]	형태소의 종류	수능특강 p.65	2022 이감 시즌4 5차 2022 강대 1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통사론 [39]	피동 표현	수능특강 p.77	2022 이감 시즌1 2차 2022 강대 1차
언어-매체 통합 [40~43]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텔레비전 뉴스 - 포스터)	수능특강 p.145 (투명 페트병)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매체 [44~45]	궁중 채화 만들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		2022 이감 시즌4 5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독서 : 과학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6월 모의평가가 혈액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과 관련하여 ‘비타민 K’의 역할을 다루었다면, 이감 모의고사는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역할을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보 기>

-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2022 이감 시즌4 1차 2022 이감ON 4차

혈소판 혈전이 점차 성장하여 **① 피브린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종류의 **응고 인자**들 중 유일하게 내피질 조직에 존재하는 인자인 조직 인자가 혈액과 접촉하여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시작된다. 활성화된 조직 인자로 인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다른 응고 인자들이 연쇄적으로 활성화되거나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 혈전의 성장과 응고에 기여하는 물질인 **트롬빈**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트롬빈은 인근의 다른 트롬빈을 활성화하면서 손상 부위 주변에서 혈소판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한다. 아울러 활성화된 트롬빈은 혈액 속의 **피브리노겐**을 섬유 형태의 단백질인 **피브린**으로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트롬빈이 분해 효소로 기능하여 피브리노겐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브린은 혈소판 혈전을 그 주변의 활성화된 혈소판들과 혈액, 그리고 자신으로 에워싸으로써 더 견고한 피브린 혈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혈전을 구성하고 있는 혈소판들은 피브린의 영향을 **② 받아** 다양한 성장 인자를 방출하는데, 그로 인해 손상 부위의 복구가 촉진된다. 그런데 피브린 혈전의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정 규모로 억제된다. 이는 TXA₂의 작용이 PGL₂에 의해 억제되어 혈전을 **④ 이루는** 혈소판의 수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기 때문이다. 트롬빈 역시 간에서 합성되어 혈액으로 분비되는 물질인 항트롬빈에 의해 다시 비활성화된다.

혈관의 손상이 복구될 만큼 시간이 **③ 흐른** 후, 피브린 혈전은 강력한 분해 효소인 플라스민에 의해 분해된다. 플라스민은 혈액 속의 플라스미노겐이 활성화되어 형성되는데, 플라스미노겐을 활성화하는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는 손상 부위 주변의 정상적인 내피세포에서만 국소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손상 부위의 피브린 혈전이 플라스민에 의해 효과적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인체는 혈전을 생성하되, 그것이 과도한 크기로 성장하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혈전증을 방지한다.

독서 : 과학 — 부수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설명

- 6월 모의평가가 혈액의 원활한 순환과 관련하여 ‘동맥 경화’를 언급하였다면, 간쓸개 지문은 동맥 경화를 핵심 개념으로 삼아 설명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2022 시즌4 간쓸개 01 2022 간쓸개 에센셜 03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④** 섭취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는 전자와 결합하면서 여러 중간 산물들로 순차 전환된 후에 물이 된다. 산소나 물과 달리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반응성이 큰, 이들 중간 산물을 ‘활성 산소’라 한다. 활성 산소의 일부는 물로 **⑥** 전환되지 못하고 혈액에 녹아 들어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 쓰이는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내에 활성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수의 활성 산소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막에 지질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중막을 구성하는 세포인 혈관 평활근 세포들 중의 일부가 내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세포들 역시 내막에서 청소 수용체를 통해 혈액 속의 ‘산화 LDL-c’를 섭취하여 포말 세포가 되며, 이 포말 세포들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는 물질인 콜라겐을 만들어 낸다. 포말 세포들 사이의 공간을 콜라겐이 가득 채우면서 엉겨 붙으면 내막 표면에 단단한 섬유판이 형성되는데, 그 결과 혈관 표면의 탄성이 줄어 동맥 경화가 나타난다.

문학 : 고전소설 — 작품 적중

- 3대에 걸친 장편 소설인 「소현성록」 중, 1대인 소현성과 부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으로 활용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씀이 매사 뛰어난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도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는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땀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꿰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2022 이감 시즌4 2차

뿐, 천자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지금 승상의 집안 다스림이 어찌 주아부의 군사 다스림보다 못하리오? 내 비록 못났으나 한나라 군사의 마음만큼은 되니, 지금 **천자가 오실 지라도** 문을 감히 열지 못한다 전하라.”

시녀가 그대로 전하니, 화 부인이 상을 박차고 꾸짖어 왈,

“이 보잘것없는 자를 죽인 후에야 내 한이 풀이지리라.”

시녀를 명하여 이홍을 잡아 가두라 하니, 원래 화 부인의 권세가 가장 크매 집안 시녀들이 다 우러러 받드나, 승상의 치가(治家)가 엄하니 내당(內堂)의 시녀들이 감히 중문을 넘어 외당의 사내종과 만나는 일이 없었더라. 또 승상의 모친 양 부인이 내당의 일을 총괄하나 승상이 장성한 후로 외당의 일은 알지 못하니, 하물며 젊은 부인이 어찌 조그만 호령이라도 중문 너머로 나가게 하리오? 또 ㉡ 승상이 이홍을 얻은 후에는 스스로 집안일을 살피지 않고 단지 그가 아뢰는 말을 들을 따름이 러니, 오늘 화 씨가 큰소리를 내며 사리와 체면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홍을 가두라 하니, 이홍이 어찌 내쫓음을 달게 받으리오.

어 화 씨 머무는 녹운당의 시녀들을 잡아내니, ㉢ 온화한 기운이 변하여 서리와 삭풍이 어지러이 불어 골수에 소름이 끼치는 듯 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림을 이기지 못하더라. 승상이 큰 소리로 물어 왈,

“누가 감히 내 명령 없이 이 주부를 결박하여 벌을 주었으며, 또 누구의 명을 들어 어떤 시녀가 감히 중문 너머로 나와서 말을 하였느냐? 곤장으로 신문하기 전에 아뢰어라.”

비복 등이 혼비백산하여, 저절로 다른 이의 입을 빌리지 않고 ㉣ 곧이곧대로 다 고하여 죄를 더하지 않으니, 승상이 먼저 가장(家長)이 없는 듯이 방약무인하게 행동한 노비 몇을 잡아 내어 곤장 오십 대씩 쳐서 내치고, 그 나머지는 삼십 대씩 벌을 주어 내치고, 홍을 불러 위로하여 왈,

“내 밝지 못하여 부인네의 호령이 그대 몸에 미쳤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그대는 안심하고 옛 뜻을 바꾸지 말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자도사」의 제시문이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상당 부분 일치함
- 지문에서 문제화한 지점 및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일치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전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넘조차 그쳤으니

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조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어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님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2022 이감 시즌4 2차

(중략)

은침(銀鍼)을 빼어 내어 오색(五色)실 꿰어 놓고

님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 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情)을 님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고

간장(肝腸)이 다 썩어 넘조차 그쳤으니

친 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 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밝은 해 무정하니 복분(覆盆)*에 비칠조나

평생 쌓은 흠은 다 나의 탓이로되

㉡ 언어에 공교(工巧)*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어 보고 다시금 생각하니

하늘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 조우인, 「자도사(自悼詞)」 -

[A]

[B]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자도사」의 제시문이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상당 부분 일치함
- 지문에서 문제화한 지점 및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일치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 시즌4 간쓸개 02
2022 간쓸개 에센셜 03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전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길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읍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어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닢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간장(肝腸)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통한 눈물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밝은 해 무정하니 복분(覆盆)*에 비칠쏘나
평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재주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紗窓)의 매월(梅月)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 거문고 줄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두견새 닢이 되어
밤마다 배꽃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五更)의 새벽달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自悼詞)」 -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작가에 대한 정보 및 심리와 인식에 대한 내용이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일치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깃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곧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시즌4 간쓸개 02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치적 이유로 화를 입은 사대부의 시가에는 흔히 자신의 억울함이나 충정을 임금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정치 현실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 등이 나타나 있다. 광해군 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유배되거나 투옥된 작가들의 작품인 「단가 육장」과 「자도사」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④ (나)에서 '님의 터진 옷을 깃고자 하'여도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을 올바르게 보필하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나)의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은,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이 득세하는 타락한 정치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겠군.

22 다음 선생님의 안내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대부의 시가 중에는 작가 자신과 임금 사이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습니다. (가)는 대신들과의 대립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임금을 천상계의 존재로 설정하여, 자신의 포부를 못다 펼친 것에 대한 감회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나)는 무고를 당해 옥살이를 했던 작가가 자신을 임과 이별한 여인에 빗대어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사시가」의 제시문이 간썰개에서 일부 일치함
- 표현상 특징과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항의 내용이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닭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지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2022 시즌4 간썰개 04

(가)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

1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잘 익어서 떨어지는 '밤'을 통해 환기된 정서가 '계'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② (나)의 '유신한'에는 때가 되면 찾아오는 자연물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③ (가)에서는 '대추'가 붉게 익은 '골'이, (나)에서는 '여름'이 찾아온 '초당'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느끼는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가)의 '술'은 화자에게 부정적 반응을, (나)의 '바람'은 화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⑤ (가)의 '아니 먹고 어이리'에는 흥취를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의 '역군은이샷다'에는 한가로운 생활에 감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문학 : 현대시 — 작품 및 선지 적중

- 「향아」를 간쓸개에서 공통적으로 출제하였으며, 문항의 발상 및 선지 판단 근거가 매우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몰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2022 시즌1 간쓸개 02 2022 간쓸개 에센셜 01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누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 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香)아」 —

1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4·19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신동엽 시인은 과거 역사로 눈을 돌렸다.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분단(分斷) 현실을 혐오했으며 산업화와 문명화가 초래한 물질주의의 세태에 절망했던 그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원시적 시·공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공생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진다. 그런데 유토피아적 세계의 모델을 현재나 미래 대신에 주로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의 시작(詩作)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절대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인이 지닌 복고주의적 의식을 잘 보여 준다.

- ① 제1연의 '오래지 않은 옛날'은 산업화로 인한 유토피아적 세계의 파괴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일임을 암시하는군.
- ② 제3연의 '전설 같은 풍속'은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시·공간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하는 모습을 환기하는군.
- ③ 제4연의 '눈동자'는 산업화와 문명화가 빚어낸 물질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그릇된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④ 제4연의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공생하는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버려야만 할 것이겠군.
- ⑤ 제5연의 '미개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원시적 시·공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복고주의적인 의식을 보여 주는군.

문학 : 현대시 — 작품 및 선지 적중

- 「향아」를 간쓸개에서 공통적으로 출제하였으며, 문항의 발상 및 선지 판단 근거가 매우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꿈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2022 시즌3 간쓸개 03 2022 간쓸개 에센셜 02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7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환한 얼굴'은 함께하는 노동의 즐거움에서 생겨나는 표정을, (다)의 '아버님의 품의'는 고인의 살아생전 취향에서 떠올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② (가)의 '전설 같은 풍속'은 때 묻지 않은 환경에서 정겹게 어울려 살던 때를, (다)의 '풍상을 같이 받은 유품'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유량으로 고단했던 때를 환기한다.
③ (가)의 '무지갯빛 허울'은 기대만 품게 하다가 허망하게 좌절된 꿈에 대한 회한을, (다)의 '기교와 정력'은 완상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한 반감을 함축한다.
④ (가)의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고향을 떠난 삶에서 얻은 부정적인 습성을, (다)의 '무위와 허욕'은 옛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치우친 마음을 의미한다.
⑤ (가)의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은 본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지향을, (다)의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은 옛사람들의 정성에 견주어 어설피고 빠르기만 한 현대의 풍조를 시사한다.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유사

- 발표 형식에서 말하기 방식(말하기 계획)을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 발표 형식에서 자료 활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36. 발표자의 자료 활용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자료 2]	
N 4		N 4	
감자	옥수수 (배추로 교체)	옥수수	감자 (배추로 교체)
상추	고추	고추	상추
첫해 배치도		다음 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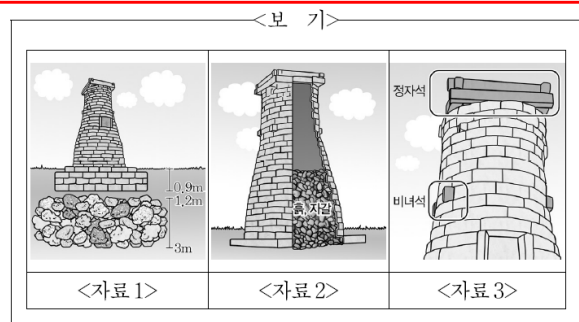
- ①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 상추에 그늘이 많이 생겼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②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했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③ 작물들의 키 순서를 고려하여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음을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④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음을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⑤ 동일한 위치에서도 주변 작물에 따라 배추가 자라는 정도가 달랐음을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2022 이감 시즌4 2차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권유**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6.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첨성대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돌들 사이의 틈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첨성대의 기반 공사가 이뤄져 있는 깊이를 알려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첨성대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첨성대 상부에 안정성을 더하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첨성대의 원통부가 아래보다 위가 좁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및 선지 유사

-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듣는 내용 등이 표현된 선지가 화법과 작문 220제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발표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청자 1: 작물을 수확하고 난 후 다른 작물로 교체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작물을 교체한 이유가 뭘까?

청자 2: 브로콜리가 케일보다 키가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어. 이번에 케일과 브로콜리를 심을 계획인데, 들은 것을 활용해야겠어.

청자 3: 작물들의 키 순서만 알려 줘서, 작물들이 다 자랐을 때의 키를 알 수 없었어. 작물들의 키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좋았겠어.

-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청자 2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다른 정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 ④ 청자 1과 청자 2는 모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모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37.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청자 1: 청구도는 책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하나의 지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구나. 대동여지도가 사용자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지도라는 것은 몰랐는데 알게 되어 좋았어.

청자 2: 두 권의 책인 청구도에 비해 대동여지도는 22첩이나 되니 휴대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겠군. 그런데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기호들이 각각 어떤 장소 정보를 나타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어.

청자 3: 청구도의 맨 앞에 실렸다는 색인은 무엇을 찾아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걸까? 책에서 대동여지도는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용자의 편리성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심해서 만든 지도인 것 같아.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화법과 작문 : 화법-작문 통합 — 문항 유사

- 대화(회의, 토의)와 글이 결합된 형식에서 대화(회의, 토의)에 나타난 사회자 및 대화(회의,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 ②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다.
- ④ 대화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 ⑤ 대화 참여자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심화한다.

39.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 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화의 내용을 상기하며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질문에 답변하며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 ⑤ ㉤: 앞선 발화 내용을 재진술하며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38. (가)에 드러난 ‘유진’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안내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회의 참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해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이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④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후 다음 논의로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⑤ 회의 참여자들에게 회의 이후 진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역할을 배분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 글이 실리는 코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우’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③ ㉢: ‘선회’가 발언한 내용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민찬’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민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 지난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상대에게 환기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⑤ ㉤: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화법과 작문 : 화법-작문 통합 — 문항 유사

- 대화에서 오고 간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활용하여 세운 작문 계획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 다음은 '학생 1'이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대화 내용	글쓰기 계획
디스토피아의 정의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①
디스토피아 작품의 소재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②
디스토피아 작품의 표현 방식	과학 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 파괴 등으로 소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③
디스토피아 작품의 사례	특정 작품을 예로 들어 작품이 사회적 문제를 환기함을 언급하기.....④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서 인기 현상의 긍정적 의미를 도출하기.....⑤

2022 이감 시즌2 1차
2022 이감ON 3차

41. 다음은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토론 중 메모	글쓰기 전략
[입론] 찬성 1 ·차등 벌금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 [반대 신문] 반대 2 ·소득이나 자산 파악 [입론] 반대 1 ·범죄의 죄질 ·차등 벌금제를 도입했던 국가들	1문단 차등 벌금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촉발된 배경을 제시하며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혀야겠어.㉠ 2문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간에 처벌의 경중이 동등해지도록 범죄의 죄질과 함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3문단 벌금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노역장 유치 건수에 관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차등 벌금제의 필요성을 부각해야겠어.㉢ 4문단 차등 벌금제를 도입했던 모든 국가들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등 벌금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야겠어.㉣ 건강 보험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을 근거로 들어 차등 벌금제에 활용될 경제적 사정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화법과 작문 : 작문 — 문항 유사

- 작문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과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글의 보완 및 수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과 관련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료 1] ○○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자료 2] △△ 학술지의 논문

[자료 3] ○○ 지역 교육 상담 전문가 면담

- ① [자료 1]의 (가)와 (나)를 활용하여, ㉠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과 심리 상담 경험에 없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비율을 추가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이 필요한 이유로 청소년기의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의 적용 방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 관리를 돕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제시한다.
- ④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난 현상이 학습 및 학업에 곤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한다.
- ⑤ [자료 1]의 (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전문 상담 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2022 이감 시즌4 4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44. <보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지역 신문 기사

㉡. 인터뷰

㉢. 연구 자료

- ① ㉠을 활용하여, 공유 냉장고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추가한다.
- ② ㉡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공유 냉장고에 대한 (나)의 내용에 보통의 사업과 달리 시민들이 직접 공유 냉장고의 설치,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공유 냉장고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우리 지역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④ ㉠과 ㉡을 활용하여, ○○ 시장의 공유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는 (나)의 내용에 별도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냉장고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공유 냉장고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신문 기사

㉡. 오픈 액세스 소개 자료

㉢. 통계 자료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음운 규칙에 따른 음운 변동을 파악하는 문항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강대 1차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뿔[뿔]**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 ③ 국어에서 '밤만 있어'의 **밤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안일[압닐]	㉡ 장미꽃[장미꼴]	㉢ 냉고[너코]
㉣ 걱정[걱쩍]	㉤ 굳이[구지]	

- ① a, b, c
- ② a, c, e
- ③ a, d, e
- ④ b, c, d
- ⑤ b, d, e

37.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갈하다 → [가파다]	㉡ 결낫질 → [견남쩍]
㉢ 비들었 → [비들뻬]	㉣ 엮혔 → [여플치]
㉤ 직행열차 → [지캐널차]	

- ① ㉠과 ㉢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과 ㉡에서는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③ ㉡과 ㉣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④ ㉡과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⑤ ㉢과 ㉣에서는 각각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아래 그림에서 ㉠에는 '밤말이'를 발음할 때와 동일한 음운 변동 이 일어나는 단어를, ㉡에는 '밝히다'를 발음할 때와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그리고 ㉢에는 '밤말이'와 '밝히다'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밤말이[밤마리]	㉠
밝히다[발키다]	㉡
	㉢

학 생 : [A]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에 대해 파악하는 문항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숨-’,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피’,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숨고 부터피 禮數히 숨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께 절 올리고]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려 하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
㉢ 내 이제 世尊의 숨노니 [내가 이제 세존께 아뢰니]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쭙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③ ㉢: 조사 ‘피’와 동사 ‘숨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쭙’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2022 이감 시즌2 1차

한편 문법적 높임 중 하나인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이 주체 높임에서만 쓰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이 세 가지 높임 표현 모두에서 나타났다. 선어말 어미에 의한 주체 높임은 현대 국어처럼 ‘-시-’를 통해 실현되었는데, ‘-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샤-’의 형태로도 실현되었다. 선어말 어미에 의한 객체 높임은 ‘-습-’으로 실현되었는데, 이 또한 음운 환경에 따라 ‘-줍-, -습-, -슬-, -줄-, -슬-’으로 나타났다. 선어말 어미에 의한 상대 높임은 ‘-이-’나 ‘-오/고-’를 통해 실현되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 世尊入 安否 묻고고 니르샤디
[세존의 안부 묻고 이르시되]
㉡ 龍王이 널오디 이 터리도 문거이다
[용왕이 이르되 이 털도 충분합니다]
㉢ 므스물 보시고 文殊師利의 문즈불샤디
[마음을 보시고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 내 太子를 섬기스보다 하눌 섬기습다 하야
[내가 태자를 섬기되 하눌 섬기듯 하야]
㉤ 내 아드를 드려가려 히시느니 眷屬 드외스박서 설본 일도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니 아내 되어서 서러운 일도]

- ① ㉠에서 ‘니르샤디’의 ‘-샤-’는 ‘世尊(세존)’을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군.
② ㉡에서 ‘문거이다’의 ‘-이-’는 ‘龍王(용왕)’을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군.
③ ㉢에서 ‘문즈불샤디’의 ‘-줄-’은 ‘文殊師利(문수사리)’를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군.
④ ㉣에서 ‘섬기습다’의 ‘-습-’은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군.
⑤ ㉤에서 ‘히시느니’의 ‘-시-’는 ‘아들(아들)’을 높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군.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형태소의 유형을 파악하고 형태소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과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2022 이감 시즌4 5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38. <보기>의 ㉠~㉢에 들어갈 예를 짝 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인가요?

↓예 ↓아니요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나요?	㉡
↓예 ↓아니요	㉠ ㉢

	㉠	㉡	㉢
①	'돌다리'의 '돌'	'덮밥'의 '덮'	'살림꾼'의 '꾼'
②	'높낮이'의 '이'	'내리다'의 '내리'	'싱싱한'의 '싱싱'
③	'참 좋다'의 '참'	'마시고'의 '마시'	'들끓다'의 '들'
④	'그 꼴로'의 '꼴'	'수줍음'의 '수줍'	'나의 집'의 '의'
⑤	'우리 집'의 '우리'	'들어간다'의 '들'	'가다가'의 '다가'

39.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단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이다. 형태소는 의미와 기능에 따라, 또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되며, 자립성 여부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된다.

<보기 2>

검붉다, 나의 옷, 들끓는, 떡고물, 헛웃음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피동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적용하는 문항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1 2차
2022 강대 1차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 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고 능동문의 서술어의 어근에 피동 접사가 붙거나 어간에 **‘-어지다’**가 붙어 피동문의 서술어로 사용된다. 이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다.

그러나 모든 주동문과 사동문,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내가 짐을 옮기다’의 주동문으로 ‘짐이 옮다’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사동문의 목적어인 ‘짐’이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자에 다리가 걸리다’와 같은 피동문의 경우에도 능동문의 주어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능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나, ‘집을 먹다’와 같은 일부 능동문의 경우에도 피동문을 상정할 수 없다.

- ① ㉠은 이에 대응되는 피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능동문이다.
- ② ㉡에서 ‘눅는다’는 타동사이므로, 부사어 ‘열에’는 이에 대응하는 사동문에서 주어가 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누나가 아기를 어머니에게 안겼다.

- 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군.
- ②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 능동문에서 생략된 부사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군.
- ③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성분의 변화가 없군.
- ④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사동문에는 주동문의 주어와 다른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군.
- ⑤ 피동문과 사동문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용언에 동일한 형태의 접사를 사용할 수 있군.

언어와 매체 : 언어-매체 통합 — 문항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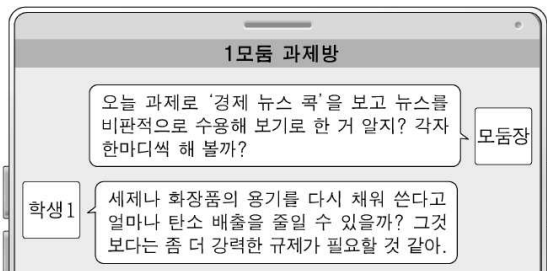
- 매체에서 사용된 요소(자막)의 활용 목적 및 방식을 파악하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 매체의 비판적 수용에 대해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제를 부각 하였다.
- ② ㉡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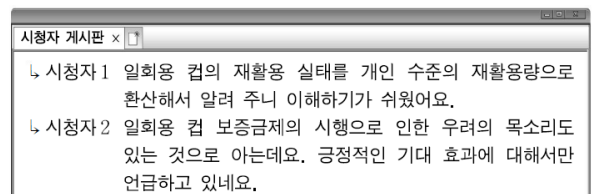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2022 이감 시즌4 2차

40. (가)의 '[장면 1]~[장면 4]'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 화면의 중앙 하단에 자막을 제시하여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장면 2]: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장소에서 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자가 느끼는 정보의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장면 3]: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제시하여 시청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장면 4]: 전문가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뉴스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장면 1]~[장면 4]: 화면의 우측 하단에 뉴스에 대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농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42. 다음은 (가)의 보도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④ 시청자 3과 4는 뉴스에서 언급한 일회용 컵 보증금으로 책정된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5는 뉴스에서 전달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관한 정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언어와 매체 : 언어-매체 통합 — 주제 유사

- 탄소 중립 등 환경 보호와 관련한 소재를 언어와 매체 220제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지요, 경제 뉴스 쿵, 김 기자. 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요?

기자: 네. 한국○○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㉕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21면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사회

제 245호 ○○신문

지구 온난화, 최악 막기까지 0.5℃ 남았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해야 최악의 상황 막아

기업, 개인, 정부의 협력 필요



[사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간이었던 지난해 장마에 ○○시 주민들이 탈출하는 모습.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잦아질 전망이다. 김△△ 기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인 IPCC는 지난해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미 1℃ 이상 상승한 상태이다.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험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1.5℃ ↑	2℃ ↑
생태계 및 인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신호 소멸	70~90%	90% 이상
대규모 기상 이변 위험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8~0.77m	0.3~0.93m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표] 평균 기온 상승 환경 영향 비교
*자료: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전문가들은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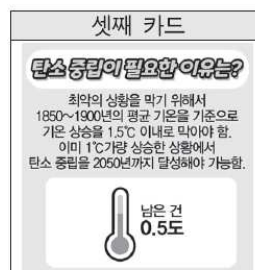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언어와 매체 : 매체 — 주제 및 문항 유사

- 뉴미디어의 특징인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이감 모의고사와 유사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전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꿈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2 이감 시즌4 5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텔레비전 방송 뉴스와 같은 전통 매체는 의사소통 방식이 일방향적이며 소수의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정보를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블로그와 같은 뉴미디어는 의사소통 방식이 쌍방향적이며 생산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뉴미디어의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의 요리

◎ 사회 이슈

제가 조리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인데요. 전문적인 영상 장비로 찍은 것이 아니라 색깔이 안 예쁘네요. 그래도 정말 맛있었어요. 조리법은 인터넷 방송
① www.video.kr/나도요리사를
참고했어요.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오늘날 다른 매체를 병용하여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보통 수용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블로그와 같은 뉴미디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 또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뉴미디어를 통해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의 정보가 다시 전파되는 것처럼 뉴미디어는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던 전통적인 매체들을 통합한다는 특성도 지닌다.

2023학년도 이감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문을 보는 방법부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연습까지!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읽는 안정된 실력을 완성합니다.

36주간의 커리큘럼

